

豕 占

학초 이 덕 환
(서예가·한학자)

- 돼지의 행동으로 점(占)을 친다 -

고래(占來)로부터 돼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돼지의 꿈을 꾸고 횡재를 했다는니 아들을 낳았다는니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돼지의 행동을 보고 길흉(吉凶)을 점(占)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은 여가시간을 이용해 이 점(占)으로 길흉(吉凶)을 판단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기대할 것은 기대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돼지가 궁실(宮室)안으로 들

어오면 그 나라의 임금이 정치(政治)를 잘 못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집집마다 집주인이 가도(家道)를 어지럽게 하여 패가망신(敗家亡身)하는 수가 있다.

돼지를 두고 길흉(吉凶)을 말하면 그 말과 같이 된다.

돼지가 아무 이유없이 밤낮으로 울어대면 이것은 주인을 위하여 곡(哭)하는 것이니, 주인이 대상(大喪)을 당한다.

돼지가 자기의 꼬리를 끊어 먹으면 흉년(凶年)이 든다.

돼지가 자기의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잡아 먹으면 그 집은 파산(破産)한다.

돼지가 지붕위에 올라가면 그 나라 또는 그 고을에서 어진 선비를 얻는다.

돼지가 부엌안으로 뛰어들면, 집에서 또는 그 집의 사람이 남과 다투는 일이 있으며 이로인해 형사적(刑事的)인 일이 발생한다.

돼지가 아무 이유없이 임금의 방 또는 사가(私家)의 주인방(主人房)에 들어오면 여자의

난잡(亂難)한 행위로 망신당하는 일이 생긴다.

멧돼지가 무단히 사람의 집에 들어오면 그 집 주인은 집을 잃는다.

붉은 멧돼지를 보면 3년이 못되어 나라에 대화(大禍)가 일어나고, 국가가 전복되어 야(野)에 있는 사람이 정권(政權)을 잡는다.

돼지가 멧돼지를 낳으면 나라에 흉년이 들어 백성(百姓)들이 굶주리고 병란(兵亂)이 일어난다.

돼지가 쇠붙이에 오줌을 싸면 지방의 주둔병이 반란을 일으킨다.

돼지가 흙더미에 오줌을 싸면 나라가 새로운 땅을 얻는다.

돼지가 돌위에 오줌을 싸면 나라의 병력(兵力)이 크게 진작(振作)진다.

돼지가 오곡(五穀)에 오줌을 싸면 풍년(豊年)이 든다.

돼지가 초목(草木)에 오줌을 싸면 나라가 사가(私家)에 대상(大喪)이 생긴다.